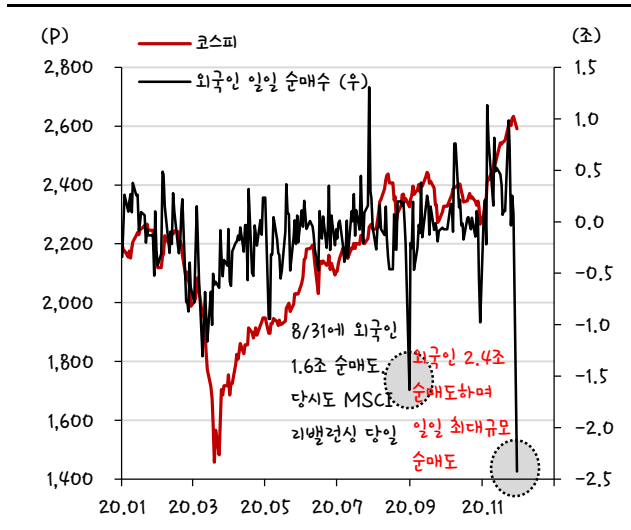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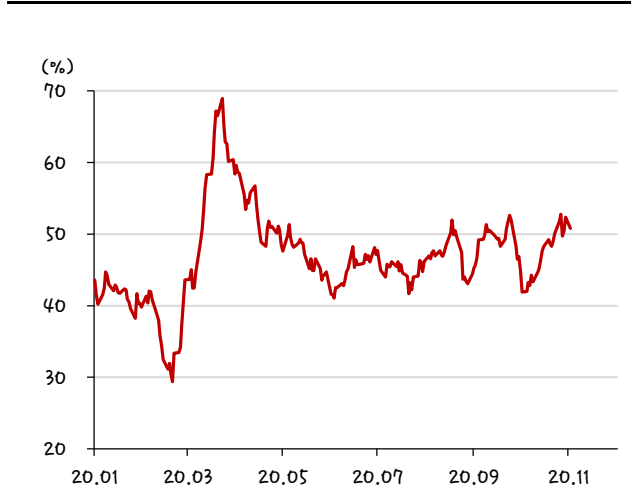
외국인은 왜 매도폭탄을 던졌을까

코스피 역대 최대규모의 일일 외국인 순매도 기록



자료: Quantwise, SK 증권

코스피 및 코스닥의 하락종목 대비 상승종목 비중



자료: Quantwise, SK 증권

코스피 개장 이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일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4 조원을 순매도했다. 11 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증시에 유입되며 증시상승을 뒷받침했던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변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MSCI 리밸런싱의 영향이 있었다. 어제는 MSCI 지수의 리밸런싱 적용일이었다. 공교롭게 역대 두번째로 외국인 순매도가 많았던 지난 8/31 도 MSCI 리밸런싱 당일이었다(1.6 조 순매도). 이번 리밸런싱에는 MSCI EM 지수 내 인도의 비중이 증가하고 쿠웨이트가 신규편입됐다. 반면, 한국의 비중은 12.1%에서 11.8%로 축소됐다. 패시브 자금에서 자금유출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MSCI 리밸런싱을 감안해도 너무 큰 규모의 매도였다. 그렇다면 두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다. 11/29 까지 코스피는 16.2%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단기급등으로 인한 차익실현 욕구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업종이 반도체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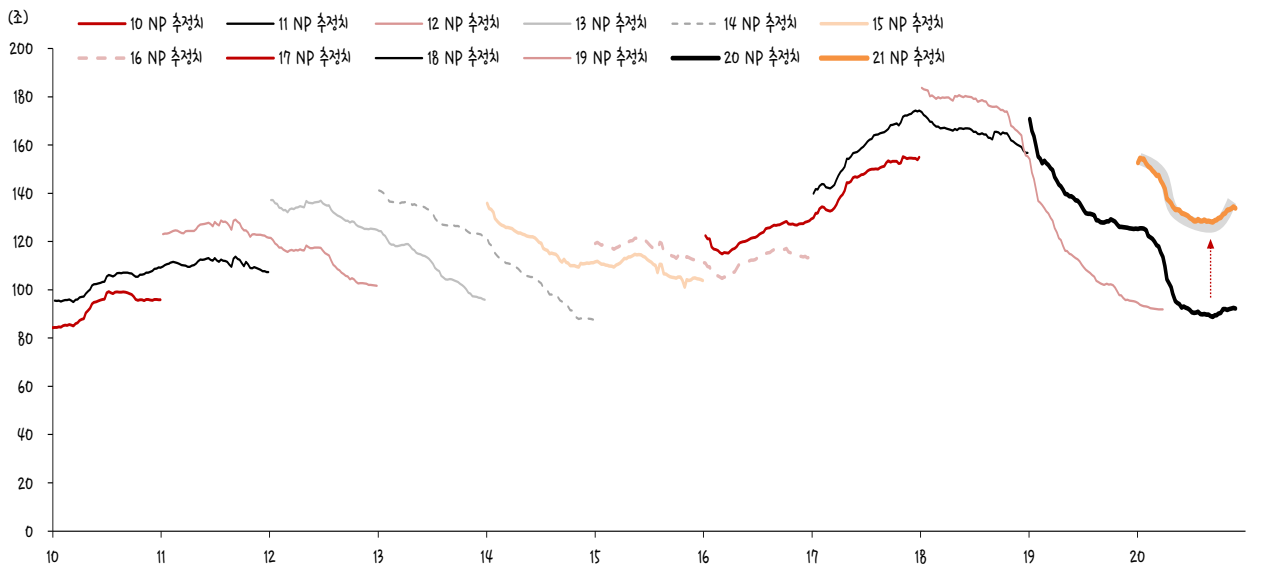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재점화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과 중국해양석유를 규제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미중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순간에 나온 깜짝조치였다. 향후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 계속될 수 있고, 이는 지난 몇 년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였던 미중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책 및 정치적 이벤트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어제의 외국인 매도폭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의 신호탄일까?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현재로써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11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로 돌아온 배경에는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미국 정치불확실성 완화, EM 내 높은 매력도 등이다. 아직까지 위의 두가지 요인은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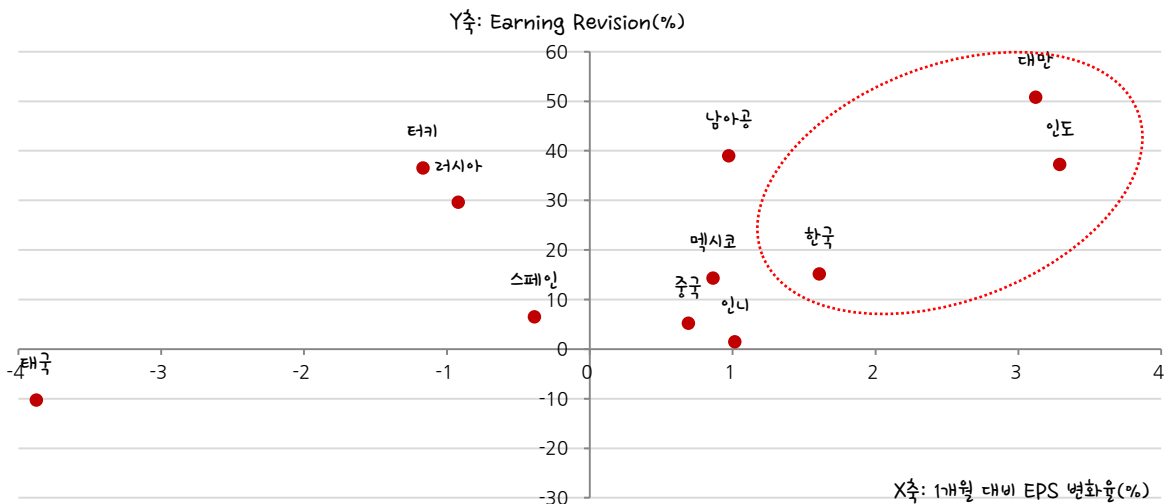
최근 아시아 EM 가운데 인도와 대만의 실적추정치가 국내보다 가파르게 상향조정되고 있어 상대적인 매력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내기업들의 이익추정치 상향도 계속되고 있다. 12개월 선행 Fwd. 기준으로 코스피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30조원으로, 이는 지난달 126조원에 비해 +3.4% 증가했다. 반도체 업종을 필두로 실적개선 기대감이 유효한만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국내증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환율도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세적인 자금유출의 신호탄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코스피 연도별 당기순이익 추정치 변화: 내년도 추정치는 상향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 Quantwise, SK 증권

주요 EM 국가의 실적매력도 측정



자료: REFINITIV, SK 증권